



하이원 리조트의 스노보더용 슬로프 하프파이프에서 도약하는 보더. 하이원 리조트는 하프파이프 외에 초보도 1400여m 정상에서 탈 수 있는 4km의 코스부터 국제스키연맹 공인 레인까지 18면의 다양한 슬로프를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 | 하이원 리조트

최고의 설질·4200m 슬로프 “스키 탈맛 난다”

(가장 긴 코스)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스키장은 아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모두 2~3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평균 1시간 안팎의 이동거리를 자랑하는 수도권 근교 스키장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조금 불리하다. 하지만 하이원 리조트는 매년 이맘때 수에서 상 위권이고, 중가세도 꾸준하다. 하이원의 매력은 스키를 마음껏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규모에 있다. 하이원 관계자는 “바쁘게 와서 한 두 시간 타고 떠나기보다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강원도 설경을 감상하며 스키를 즐기고 주변 관광과 맛 기행도 챙기는 겨울여행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고 소개한다.



1 마운틴탑 2 리프트 3 패트롤 안전요원 4 시즌 라커룸

난이도 고루 안배한 18개 슬로프 자랑 수도권에선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설질 닥터헬기·패트롤 등 안전시설도 완벽 객실 1827개...가족과 스키여행 강추

●초보도 설경 즐기며 내려오는 1400m 정상 슬로프

하이원은 스키장 부지 94만7780㎡에 총 18개의 슬로프를 갖고 있다. 슬로프 총 길이는 21km로 경기권에 비해 2~3배 정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중 가장 긴 곳은 제우스1과 제우스3이 이어진 코스로 4200m다. 1376m의 벨리탑 정상에서 출발해 벨리 스키하우스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 이외에도 아테나1(1183m), 아테나2(1666m), 아테나3(1862m), 아테나3-1(1162m), 제우스2 (2198m), 제우스3(1835m), 제우스3-1(1023m), 아폴로1(1506m) 등 다른 슬로프들도 모두 1000m 가 넘는 길이이다.

긴 슬로프들은 난이도를 고루 안배했다. 월드컵스키대회를 열 수준의 국제스키협회(FIS) 공인 슬로프 2개가 있는가 하면, 초보자도 벨리탑이나 마운틴탑(1340m) 정상에서 탁 트인 전망을 만끽하며 4km의 긴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원의 진짜 자랑은 설질이다. 스키장의 고도가 높아 시즌 내내 최적의 기온을 유지해 자연 그대로의 파우더 스키를 즐길 수 있다. 판매설기 72대와 견제설기 671대를 갖춰 2700m 규모의 아테나1과 2 같은 슬로프는 2~3일이면 오픈한다. 정설기도 12대가 대기해 낮 동안 스키어들이 이용해 울퉁불퉁한 슬로프도 2시간 정도면 매끈하게 다듬어 야간스키가 가능하다.

●응급상황엔 헬리콥터로 환자 이송 '닥터헬기'

올해 최고의 화두인 '안전'은 하이원에도 예외가 아니다. 개장 전 원통형 매트 5000개, 사각매트커버 1200개를 설치했고, 리프트 6기와 곤돌라 3기의 안전센서 및 전기 부품 정비 및 교체도 완료했다. 초급 슬로프를 위주로 기존 간이 매트형 승터를 밀폐형 승터로 교체했다. 초보자들은 슬로프에서 안심하고 설 수 있고 중·상급자들은 슬로프에서 쉬는 고객을 피하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더욱 안전하게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다.

응급상황에는 안전요원(패트롤)이 스노모빌 16대를 이용해 전문의가 상주하는 두 군데 의무실이 이송한다. 의무실 옆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인근병원으로 이송할 수

는 구급차 2대가 대기한다. 특히 시간이 급박한 상황일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대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닥터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리조트 내 호텔만 3개, 콘도 포함 객실 1827개

하이원은 복합리조트답게 다양한 종류의 객실이 있다. 강원랜드, 컨벤션, 하이원 등 총 객실 924개의 호텔 3개가 있고, 콘도도 마운틴, 벨리, 힐 등 3개를 운영한다. 호텔과 콘도를 합하면 객실이 1827개에 달한다.

콘도마다 장비 렌탈과 매표소를 설치해 스키나 보드를 즐기러 스키하우스까지 가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 카페테리아, 콘도 출입구 등 고객동선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 고객의 안전을 고려했다. 마운틴과 벨리의 스키하우스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1340m 마운틴탑 정상에는 다른 스키장과 달리 스넥바와 함께 전망 레스토랑을 운영해 가족과 함께 겨울 강원도 산악 절경을 즐길 수 있다.

렌탈 스키와 보드 장비도 넉넉해 마운틴, 힐, 벨리의 장비대여소 스키 4500개 보드 20000개를 갖추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헬멧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김재복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스키타고 출출할 땐 뜨끈한 '갈비곰탕' 한 사발

■한정식 레스토랑 '운암정'

‘드라마 촬영지에서 설경 보며 따끈한 한정식.’

요즘 스키 리조트들은 슬로프 못지않게 부대시설에도 신경을 쓴다. 하이원에는 한정식 레스토랑 '운암정'이 있다. 원래 이곳은 허영만의 만화가 원작인 2008년 24부작 드라마 '식객'의 세트장이었다. 만화와 드라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음식점으로 등장하던 가상의 운암정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준비해 현실로 만들었다.

겨울철 운암정은 하이원 주변의 경치를 음미하면서 한정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메뉴로는 궁중요리의 기본상으로 왕

에게 진지를 올리는 마음을 담아 현대적으로 구성된 운암정찬. 축하연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나 또는 회식을 할 때 준비하는 교자상차림에 기본을 둔 식객한상차림 등이 있다.

겨울 스키시즌에는 스키어와 보더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일품인 갈비곰탕이 인기 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슬로프를 질주하느라 얼었던 몸에 갈비곰탕의 진하면서 깔끔한 국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확 풀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운암정에는 또한 전통 다도를 배울 수 있는 다례관이 있다. 예명원에서 다도예절 위탁교육을 받고 다도예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운암정 직원들이 다도를 일반교객



운암정 갈비곰탕

들이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통차에 대한 이론과 우리고 마시는 법을 배우는 다도 및 예절, 송화다식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10인 이상 단체고객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운암정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겨울 시즌 예약(033-590-7631)은 필수다.

김재복 전문기자

아웃도어 재킷 '합성보온재' 뜬다

수분방어 등 천연보온재 단점 보완...소비자에 어필



마무트 '마린군 재킷'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한기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두툽한 아웃도어 재킷시장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기능이 우수한 재킷을 속속 내놓으며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온재'도 그 중 하나다. 보온재는 옷 속에 넣어 온기를 유지하는 핵심재료다. 겨울재킷용으로는 오리나 거위털과 같은 천연보온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연보온재의 단점을 보완한 합성보온재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천연보온재의 강점은 보온성이다. 아직까지 합성보온재는 천연보온재의 보온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보온재는 천연보온재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분방어다. 천연보온재는 습기를 머금을 경우 보온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반면 합성보온재는 수분에 강하고 건조가 빠르다. 겨울철 눈, 비에 더 강하다는 얘기다.

천연보온재보다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게다가 중성세제로 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편하다.

실제로 유럽, 북미, 일본의 아웃도어 시장에서는 합성보온재가 천연보온재보다 인기가 높다. 천연보온재 다운재킷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패킹을 했다가 휴식시간에 꺼내 입을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수분에 강하고 슬림한 합성보온재 재킷이 슬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마무트는 합성보온재 기술인 아용기력을 적용한 '마린군 재킷'을 내놨다. 캐나다 브랜드 아크테릭스의 '패트럴 파카', 스웨덴 브랜드 하그로프스의 '로카 II 후드재킷' 등도 합성보온재를 활용한 제품들이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삼성전자 TV, 영국 최고제품 선정

소비자 연맹지 '위치' 발표...전 영역 '베스트 바이'

삼성전자 TV가 영국에서 2014년 최고제품으로 선정됐다. 영국 소비자 연맹지 '위치'가 화면 크기 별 3개 분야 나누어 2014년 TV 제품 순위를 발표한 결과, 삼성전자 TV는 전 영역에서 '베스트 바이'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한 전 제조사 20개 TV 중 9개 제품이 순위권에 포함됐고, 이 중 6개 제품이 화질과 음향, 사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베스트 바이로 등극했다. 1957년에 창간한 영국 소비자 연맹지 위치는 한 해에 2500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테스트하며 매월 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삼성전자 TV의 유럽시장 판매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 TV는 유럽 평판 TV 시장에서 1~3분기 누적으로 매출 기준 41.3%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초고화질(UHD)TV 시장에서는 52.2%의 점유율을 달성,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태블릿PC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LG전자, 무선 키보드 적용 '탭북 듀오' 출시

LG전자는 무선 키보드를 적용한 '탭북 듀오(10T550)'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면과 키보드를 완전 분리해 이동시엔 태블릿PC로 사용하고, 문서작업 시엔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적용해 버튼 하나로 탭북 본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3개까지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멀티터치가 지원되는 10.1인치 IPS디스플레이에 윈도 8.1 운영체제, 인텔 쿼드코어를 적용했다. 또 표준 USB 3.0 및 마이크로 HDMI를 지원해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도 강화했다. 키보드를 제외한 본체 무게는 530g, 키보드를 결합해도 792g에 불과하다. 제품은 검은색과 하얀색 두 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74만원, 15일부터 22일까지 예약판매한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

전국 택시콜 서비스 '1333' 서울지역 확대

내년 7월까지 부산·광주·울산 확대

콜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1333'을 기억해 뒀다. 서울에서도 1333번을 누르면 손쉽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전국 택시콜 서비스를 서울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

다. 이 서비스는 1단계로 7월부터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작했다.

서울에 이어 내년 7월까지 부산·광주·울산으로 확대한다. 2016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택시콜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콜 사업자를 1333번 단일번호로 연계해준다. 고객의 위치

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를 호출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택시 콜서비스 번호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택시 배회운행, 원거리 배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택시 콜서비스 번호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200개나 됐다. 아울러 스마트 폰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형호 기자

롯데호텔서울 '이어 앤드 라운지 파티'

롯데호텔서울 더 라운지에서는 12월31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2014년의 마지막 밤과 2015년 새해 첫 날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2014 이어 앤드 라운지 파티'를 선보인다.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낭만적인 스탠딩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세미부페와 스파클링 와인 1잔을 비롯해 레드 와인 1종과 화이트 와인 1종이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문의: 02-317-7131~2